

사 설

최근 고성지역에서는 고성군청이나 군부대 등 주요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어디에서 살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주요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이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논란이 된 것은 아니지만, 지역경기가 점점 침체되어가는 현실과 맞물리면서 논란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무슨 일이 터질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든다.

최근 고성군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어느 네티즌의 글을 잠시 인용해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고성에서 가장 큰 회사는 고성군청과 군부대입니다. 그분들이 속초로 퇴근하시면 고성에 남아계시는 고성 애국자 공무원분들이 속초 공무원들이 아침에 출근하기 편하게 고성군청을 잘 지키고 계시죠. 고성 애국자 공무원들은 퇴근하시고, 고성군민과 식사도 하시고, 소주도 한잔 하시고, 군민들 애로사항과 기쁜 일 슬픈 일 함께 하시죠.'

이러한 주민들의 분위기를 반영하듯 지난해 마감된 고성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에서도 거주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했다. 함명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을 통해 7월 중에 있을 인사에서 속초 거주 공무원들에게 인사상 패널티를 반드시 적용해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함형완 의원은 더 나아가 주소는 고성군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속초에서 살고 있는 공무원들이 관련 규정을 어기고 가족수당과 출산양육지원금

'고성사람'의 실존적 의미

을 부당하게 받고 있다며 환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황종국 군수는 함형완 의원의 지적에 수긍한다고 하면서도, 상세하게 나열하기가 어렵고 파악하는데도 시간이 걸린다며 답변을 얼버무리는 수준에서 마무리해 실망감을 안겨줬다. 특히 조의교 기획감사실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산양육지원금 부당 지급 문제를 놓고 함형완 의원과 논쟁을 벌여, 감사가

한때 중지되는 일까지 있었다. 조실장은 "사실 위법을 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밝히고, 그 이유는 "교부세를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어차피 속초로 주소를 옮기면 속초시에 서 받는다"고도 했다.

조실장의 이런 발언은 거주지 문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생각을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나온 발언이다. 조실장의

'고성사람'의 실존적 의미

논리대로라면 속초에 살면서 고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들은 교부세를 좀 더 받게 해주기 때문에 '고성 애국자'라는 말이 되겠지만, 주민들의 생각은 결코 그렇지 않다. 주민들은 단순히 인구수를 늘려주는 그런 행위는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고성에서 살지 않을 것이라면 차라리 법대로 실제로 거주하는 속초시로 주소를 옮기라는 게 주민들의 목소리다. 이것은 확실하다.

여기에서 우리는 '고성사람'의 실존적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된다. 전라도나 경상도가 고향인 사람이 현재 고성으로 이주해서 살고 있다면 이 사람은 실존적으로 '고성사람'이다. 그러나 주민등록은 고성군에 있지만 실제 거주는 속초에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실존적으로 '속초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속초사람'이 '고성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다보면 지역은 결코 발전할 수 없다.

또 우리나라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 민주국가이다. 북한이 아니다. 속초에 살면 속초에 주민등록을 두는 게 정상인데, 고성군에 주소를 두면서 고성을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 생계로 바빠서 미처 신고를 못하는 것도 아닌데 일부러 주소를 허위로 신고한다는 점에서 이들은 일종의 범법자에 해당한다. 어차피 고성에서 살지 않을 거라면, 속초에 거주하는 140여명의 공무원들은 내일 당장 주소를 모두 속초로 옮기라는 게 주민들의 준엄한 목소리다.

반값 또는 무료 등록금, 졸업 후에 변제(반값) 증여(무료)로 상환(대여)하면 어떨까. 국가 보루인 교육투자는 백년대계요 자손만대의 영원한 번영발전으로 매진하는 청경이다. 사람을 육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한 가지 불인다면 사람은 그가 흘린 땀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인데, 땀을 몹시 아낀다. 몸을 아끼는 사람은 몸을 망치고 몸을 내던지는 사람은 도리어 몸을 구하게 된다. 사람이 그 한 몸을 아끼지 않는다면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인가. 땀의 대가는 보람이자 행복이다.

등록금 무상도 졸업 후 경제적 사회적 이상을 인정, 근로정신양양과 근로의 존귀 함양, 대가정신을 다음 세대에 남겨주겠다는 의지에 따라 문화전승이 자연적으로 되도록 여건과 기회가 좋은 선례로서 남기었으면 하는 희망이다.

다시 말하면 장학혜택은 명예와 이상을 존중함에 있다 하겠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속담이 있듯이 원인에 따라 결과가 생긴다는 말은 5천년 우리 민족 정신과 정서를 잘 표현하는 금언이다. 따라서 받았던 은혜와 사랑을 후대에 전수하겠다는 유지에서 발상하는 것이다.

하나, 재원의 마련은 인재교육 보험제 개발과 기존 교육보험을 활성화하고 인보

금강칼럼

김 종 식
객원논설위원



반값 또는 무료 등록금 과제

험과 재해보험 활성화 등 보험 법제의 정비 개선 내지 종합정비가 필요하다. 무상 무료 보상의 원리를 적용하는 원칙이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국민정신을 고양고무 분위기를 조장하여 인류정신으로 선도하는 인재육성을 하여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둘, 교육세 개선과 셋, 수혜자들의 경제 활동과 함께 기여금 기금조성 과제를 풀어야 한다. 즉, 장학 수혜자, 반값 등록금 수령자, 무료등록금 수령자, 기타 모든 수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즉 대사적 상환보상의 우너칙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칭 증여상환 금고공단을 설치해 운영하는 과제이다.

따라서 이 기금의 조성은 위에 서술된 각 보험제 개선 교육세 개선 등 수혜자의 기금 기타 기여금조성 재원확보 정착할 분

기점에 있다 하겠다. 요행이나 행운 사행심을 완전히 불식하고 자조 자립 협동으로 하자는 것. 감나무 밑에 누워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그 사람 놀고먹자는 분위기를 일소하고 퇴폐풍조 불노소득자를 추방하여 문제를 해소함이 필요하다. 공짜 생각에서 벗어나 불신사회에서 신뢰 사회가 되어 3만불 문화시대를 맞이하도록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보자.

노만 피일은 말하기를, '자립 독행하여 적극적이면서 매사에 낙관적이면 그리고 맑은 바 일을 성취하리라는 확신을 품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의 환경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 그는 우주의 창조적인 힘을 자기에게로 끌어온다. 굳센 의지는 홀로 선다.'

행운은 부지런한 사람에게 찾아간다. 앞서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찾아오

지 않을 것이다. 걷는 자만이 앞으로 간다는 진리는 오직 근면함의 교환과 그대가 순진하고 맑고 깨끗한 심성을 간직했다면 열 개의 진주목걸이보다 그대의 행복을 위한 빛이 될 것이다. 그대가 비록 불행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만약 그대의 마음이 진실하다면 아직 힘찬 행복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진실한 마음에서만 인생이 헤어날 힘찬 지혜가 우러나오기 때문이다. 신실은 믿을 실체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채찍질을 해본다. 스위스 교육학자 페스탈로치의 인간학교에서.

건강 365일, 22호에 이어 대산을 유익하게 사용하면 의료비 절약에 도움이 된다. 병증의 예방에 앞장선다. 36)만성설사(설사를 오래하고 멎지 않을 때)에는 마늘 한통을 구워서 매일 식전마다 한쪽씩 세 번 복용한다. 37)유행성 질병, 독감, 암증, 아메바성 대장염, 피부염, 수종병 예방엔 식사 때마다 생미는 3!5쪽을 장복하면 위의 질병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 예방에도 효능이 있다. 만약 입에서 마늘 냄새를 제거하려면 김 1~2매나 대추 1개나 꽃감 1개를 먹으면 냄새는 사라진다. 38)폐결핵엔 큰 마늘, 살구씨, 감초 각각 12g을 물로 달여 매일 3회 식전에 복용하면 된다.

◇편집국에서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17일까지 간성읍 어천3리에서 열린 제4회 고성 라벤더 축제 결과 저온 현상으로 꽃이 많이 피지 않았는데도, 전국에서 5천여명이나 방문했다고 한다. 주최측에서 행사전에 사과문을 통해 양해를 미리 구했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고성 라벤더축제는 비슷한 예산이 투입되는 유사 사업에 비해 그나마 성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올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노력한다면 보다 발전되는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 고성신문 • 등록번호 : 강원 다 01183 • 등록일 : 2011년 1월20일 • 간별 : 주간

•우 219-803 •주소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6리3반 247-3
•편집국 681-1666 •구독·광고 681-1667 •팩스 681-1668

발행·편집인 윤승근 인쇄인 최낙관 편집국장 최광호

•2011년 1월 31일 창간 •구독료 : 한달 4천원, 1년 4만원
•구독료 납부 : 농협 301-0072-9350-81 / 예금주 : 주식회사 고성신문

※ 본지는 주간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